

“PDF 삽니다”...개강 대학가 교재 불법복제 ‘여전’

‘에브리타임’ 등에 게시글 잇따라
태블릿 선호...파일 공유·판매 등
“1년 책값 50만원 이상...부담돼”
저작권 침해...교내 서점도 ‘한숨’

신학기 개강을 맞은 대학가에서 전공 교재를 불법 복제한 PDF 파일 공유와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에는 “OO학 교재 PDF 삽니다”, “OO강의 교재 PD

F 5천원에 팝니다” 등의 글이 게시돼 있었다. 한 게시글에는 “PDF 파일도 따로 구매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올라왔고, “한 명이 책을 산 뒤 스캔해 비용을 나눠 내면 된다”는 답글이 달리기도 했다.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백모(25)씨는 “불법인 줄 알지만 가격 부담과 휴대 불편 때문에 PDF 파일을 태블릿에 넣어 이용한다”며 “전공책 한 권 가격이 3~5만원 정도라 한 학기 여러 권을 사다 보면 1년 교재비가 50만원을 훌쩍 넘는다”고 밝혔다.

실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전공 교재를 스캔하거나 파일 형태로 공유하는 일이 사실상 관행처럼 퍼져 있다.

조선대학교 재학생 이모(23·여)씨는 “선배들이 전한 후배들에게 PDF 파일을 보내주거나 학과 단체 채팅방에 파일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다”며 “돈을 받고 판매하기도 하지만 그냥 공유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날 조선대학교 인근 복사업체 여러 곳에서도 전공 교재 스캔 의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복사업체 관계자는 “학생들이 종종 책을 가져와 스캔을 요청한다”며 “페이지 수에 따라 비용을 받고 작업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판업계는 이러한 불법 복제가 대학 교재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학술출판협회에 따르면 2024년 대학생의

83%가 교재 PDF 스캔본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종이 교재 수요가 줄었고 SNS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복제물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대학에서는 교재 판매 감소로 교내 서점이 운영난을 겪거나 폐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교내 서점 관계자는 “과거에는 개강 시즌이면 교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학생들이 온라인이나 PDF 파일로 교재를 보는 비율이 늘어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대학 교재의 불법 복제가 온라인

증상으로 확산되면서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한다.

한지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교재를 복사해 제본하는 방식이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PDF 파일 형태로 스캔된 뒤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다”며 “특히 PDF 파일은 무제한으로 확산될 수 있어 오프라인 복사보다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적인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교재가 공유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다”며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 전체 교재를 복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연성 기자



“반려나무 데려가세요” 광주 동구가 제81회 식목일을 앞두고 12일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에게 반려나무 묘목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다. /김애리 기자

제주항공 참사 잔해 재조사...유해 추정 24점 또 나와

6차 작업 중 확인...현재까지 총 33점
9점 희생자 판명...특수단, 오늘 무안행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의 인골로 추정되는 유해 24점이 또 발견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전남경찰청 과학수사계 등은 12일 오전 10시에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기 잔해물 재조사와 잔해 보관 개선을 위한 6차 작업을 진행했다. 작업 1시간여 만에 희생자의 인골로 추정되는 유해 1점이 발견

됐으며 길이는 약 14cm 정도였다. 이날 해당 유해를 포함해 총 24점의 유해 추정 물체가 추가 발견됐다. 이 중 1점은 사고기 오른쪽 날개 내부에서 발견됐으며, 6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 방문 직전 항철위가 유가족과 협의 없이 둔덕 주변에서 수거한 흙과 유류품을 담아 보관 중이던 마대자루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참사 초기 수습한 잔해를 보관하던 톨백 자루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수습된 물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인계해 인골 여부를 확인한 뒤 희생자 DNA와 대조하는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주 사고기 잔해 재조사 5차까지 과정에서 발견된 유해 9점은 모두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1점은 희생자의 경강이빠로 판명됐으며, 나머지 8점은 크기가 작아 정확한 신체 부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유전자 분석 결과 해당 유해들은 청년 남성 1점, 청년 여성 2점, 중년 남성 1점, 장년 남성 3점, 장년 여성 1점 등 희생자들에게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제주항공 참사 특별수사단은 13일 오후 4시 무안공항을 방문해 유가족들과 면담을 갖고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윤찬용 기자

“정부기관 투자 종목” 20억 가로챈 수거책 구속

전국 20여명 피해...경찰, 공범 등 추적

정부 기관이 투자하는 AI(인공지능) 관련 종목에 함께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금융 사기 수거책이 구속됐다.

12일 광주 광안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A(40)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한달여간 광주를 비롯해 전국 곳곳을 돌며 2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증권사 직원으로 속인 뒤 “정부가 투자하는 AI 종목에 함께 투자해

큰 수익을 올리자”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경찰의 계좌 추적을 피하고자 투자금을 현금이나 금괴 등 현물로 교환해 가져오도록 유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다른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회수한 A씨는 이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며, 피해 금액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 파악과 함께 공범과 조직 총책의 신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윤근 기자

광주 서부경찰 ‘호송용 가스총’ 분실...수배 조치

광주 서부경찰이 피의자 호송용 가스총 분실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2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직원 인사 발령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가스총 1점이 없어진 사실을 인지했다.

해당 가스총은 가스분사기로 최루 성분 등을 분사해 상대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압하는 경찰 장비다.

경찰은 피의자 호송을 위해 가스총을 보관함에서 반출한 뒤 분실한 것으로 보고 내·외부 CCTV를 분석하는 한편 유치장과 호송차량 내부, 차고지, 출장소 등을 수색했지만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총 반출·반입 관련 대장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가스총이 언제 사라졌는지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분실 사실을 보고받은 경찰청은

총기 일련번호를 통해 해당 가스총에 대한 전국 수배 조치를 내렸다.

/이연성 기자

‘10m 운전’ 30대 음주측정 거부 ‘입건’

대리운전 기사와 주차 문제로 다툰 30대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7분에 서구 삼촌동 한 빌라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주차 문제로 대리기사와 다툰 후 갖길에 주차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약 10m 떨어진 빌라 주차장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연성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